

『맨스필드 파크』 : 가부장의 부재와 복귀를 중심으로

백승봉 · 이희정

차 례

- I. 서론
- II. 가부장이 존재할 때: 전통 질서의 유지
- III. 가부장이 일시적으로 부재할 때: 전통 질서의 와해
- IV. 가부장이 복귀했을 때: 전통과 변화의 공존
- V. 결론

I. 서론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시기는 18세기 말엽에서부터 빅토리아조 직전시기로, 새 시대의 시작을 앞둔 전환기에 해당된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 혁명 후 시장 경제 체제가 더욱 활성화 되면서 경제적 번영과 해외 식민지의 확장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실상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 위기를 가져온 요인 중 중심을 차지하였던 것은 전쟁이었다. 미국 독립 혁명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은 오스틴의 생애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 여파로 일시적이었으나 영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이에 못지않게 프랑스 혁명(the French Revolution)의 영향 또한 “영국이 정치적으로 흔들렸다”고 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Roberts 3). 혁명의 기류가 유럽에서 영국 내로 전해지면서 급진주의가 확산되었고 시위와 폭동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급진주의를 경계하고자 보수주의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점차 영국 내 혁명 발발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

면서 이를 차단하고자 피트(Pitt) 내각의 공포정치가 가해지기도 한 것이다(박지향 370; Roberts 22-3).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스틴의 작품에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 사건들과 불안감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오스틴은 동시대 작가들과 달리 당대 사회의 주요 현황과 쟁점들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을 배제한 채, 전 작품에서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남녀의 사랑과 결혼의 문제만을 다루어 왔다. 게다가 다루는 범위마저도 조카 애나(Anna)에게 쓴 편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골 마을의 서너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한적이고 협소하다(Letters 287). 이러한 특성은 오스틴과 사회와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하였던 일부 평자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실상 오스틴이 그려낸 가족과 개인의 일상은 결코 당대 사회 문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리비스(Q. D. Leavis)도 이 점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오스틴의 작품 속에는 시골 마을이지만 여전히 전통적 지배 계급이 존재하고 있고 결혼과 재산 상속의 문제도 나름의 정해진 질서에 의해 시행된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27). 이는 오스틴이 젠트리 계급 중심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는 당대의 주요 풍조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Monaghan 5). 더 나아가 테너(Tony Tanner)는 오스틴이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전쟁과 같은 현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국 사회의 많은 실제적 변화와 초기 변화상들을 잘 인식하였다”고 평가하였고(13), 리비스도 오스틴이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의 실상을 그려내면서 그 속에 변화로 야기되는 심리적이며 도덕적인 문제들까지도 세밀히 다루었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27).

오스틴의 작품 중 이러한 평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이상적인 작품으로 2014년 출간 200주년을 맞이한 『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를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작인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처럼 대중의 인기를 끌만한 매력적인 여주인공이 등장하지는 않으나, 당대 사회의 내부적 실상이 두드러진다. 오스틴은 버트람가(the Bertrams)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그려내면서 그 안에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에 의한 사회 내부적 파장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오스틴이 주목하였던 것은 젠트리 계급에서 두드러진 도덕성의 와해 현상이다. 플레시먼(Avrom Fleishman)은 이 작품이 낭만주의 운동

시기에 방탕한 도덕성을 비난하였다는 점에서 “18세기의 취향과 스타일로의 복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1).

작품에서 중심을 이루는 버트람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가정이지만 ‘노예무역 폐지 법안’(Act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을 둘러싼 역사적 정황을 기점으로 가정 질서의 변화를 경험한다. 토마스 경(Sir Thomas Bertram)이 식민지 농장으로 떠나고 난 후 남겨진 가족 구성원들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유입된 새로운 가족들, 방문객들과 교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 유입된 도시 신(新)문화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까지 권력의 투쟁과 복수, 경쟁과 착취의 장에 놓이면서 고군분투 하게 된다(Wallace 59). 가부장의 권력이 제거된 상황에서 오스틴은 한 가족의 세속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그려냄과 동시에 당대 영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재현해 내고자 한 것이다. 이미 영국인들은 상업과 무역의 번창함 속에서 도시생활과 물질주의가 주는 세속성에 익숙해 가고 있었으며, 종교적 원칙에 의한 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활과 감성적 자의식이 과감히 분출되고 있었다(이영석 33). 여기에 프랑스 혁명에 의한 급진주의의 확산과 낭만주의 운동, 그리고 섭정기 전후의 사회 풍조가 더해져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처럼 오스틴은 버트람가를 통해 여성 작가로서 당대 사회의 위기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일종의 도전을 시도한다. 표면적으로는 “시골 마을의 서너 가족”의 삶이라는 평범하면서도 친숙한 틀을 추구한 탓에 버트람 가족의 도덕적 와해 과정과 복귀, 여주인공 패니(Fanny Price) 개인의 지위 변화와 행복의 성취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오스틴은 한 가정의 변화와 위기를 다루면서 자신이 인식한 당대 사회의 어두운 내면에 대한 실상과 반응을 과감히 드러내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가부장의 권력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버트람가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주변 가족들과 맺는 상호 교류 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의 영국 사회의 실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스틴이 당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움직임을 사적 영역인 가족과 가정 안에서 재현해 내고자 가장의 부재라는 장치를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출

말하여 가장의 부재 전과 후의 가정 질서의 변화, 그리고 가장의 복귀 후 가정의 위기 상황 발생과 그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전환기에 영국 사회가 안고 있던 어두운 내면의 실체를 밝혀 볼 수 있으며, 오스틴이 사회 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 어떠한 자세로 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가부장이 존재할 때: 전통 질서의 유지

버트람가는 전형적인 시골 젠트리의 가정이며, 부모와 미혼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핵가족이다. 여기에 레이디 버트람(Lady Bertram)과 관련 된 두 명의 인척이 더해지는데, 그들은 언니 노리스 부인(Mrs. Norris)과 조카 딸 패니이다. 이들을 포함한 맨스필드의 일원들은 토마스 경의 일시적인 부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며 폐쇄적인 사고 관계를 추구해야 했다. 그러한 제한성에 의해 버트람가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며, 패니가 느낀 첫 인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목할 만하게 훌륭한 가족”으로 평가된다(11).

그렇지만 전형적인 가부장적 통치가 행해지고 있기에 그 이면에는 문제점들이 가득하다. 가장 주목할 문제는 자녀들의 불만이 표출되지는 않으나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 토마스 경은 잔인한 폭군은 아니지만,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한과 통제로 상징된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자식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단점으로 작용한다. 모나한(David Monaghan)이 지적한 것처럼, 그는 겉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자제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각인된 것이다(93). 그 특성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은 토마스 경이 안티구아(Antigua)로 떠나기 직전 배웅에 나선 딸들과 패니의 모습에서이다.

이 경우에 버트람 자매들이 부친을 떠나보내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한다고 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었다. 부친은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결코 즐거운 일의 동반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의 부재는 가장 환영할 일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토마스 경에 의해 금지되어졌던 만족감에 목표를 두지 않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들의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패니가 느끼는 안도감과 이에 대한 자의식 또한 사촌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지만 더 애정어린 마음이 그녀의 감정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고 넌지시 비추었다. 그리고 패니는 자신이 슬퍼할 수 없기에 정말로 슬펐다.

The Miss Bertrams were much to be pitied on the occasion; not for their sorrow, but for their want of it. Their father was no object of love to them, he had never seemed the friend of their pleasures, and his absence was unhappily most welcome. They were relieved by it from all restraint; and without aiming at one gratification that would probably have been forbidden by Sir Thomas, they felt themselves immediately at their own disposal, and to have every indulgence within their reach. Fanny's relief, and her consciousness of it, were quite equal to her cousins', but a more tender nature suggested that her feelings were ungrateful, and she really grieved because she could not grieve. (25)

이렇듯 그들은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순간을 해방의 순간으로 여기며 안도한다. 자녀들과 패니가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 것은 늘 토마스 경의 압제에 의해 제한된 자유를 누려온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러한 까닭에 그들은 정돈된 가정이 주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오스틴은 3권 7장에서 포츠머스(Portsmouth) 에피소드를 통해 맨스필드가 지니고 있는 가정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패니의 고향집 포츠머스는 가부장의 절대적 권력 행사와는 무관하나, 한마디로 “소음, 무질서 그리고 무례함을 지닌 소굴”로 표현된다(264). 포츠머스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

으로써의 안정과 질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시끄러웠고, 모두의 목소리가 컸다. (아마도, 어머니의 목소리만 예외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버트람 이모의 목소리가 가진 저음의 단조로움과 유사하였지만, 지쳐서 짜증으로 바뀔 따름이었다.) 식구들은 모두가 무엇인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위해 고함을 질러댔고, 하녀들도 부엌에서 큰 소리로 변명을 하였다. 방문들은 쉴 새 없이 쿵쿵거리며 닫혔고, 계단은 조용할 때가 없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덜컹덜컹거리고, 아무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할 때, 아무도 주의해서 듣지 않았다.

Here, every body was noisy, every voice was loud, (excepting, perhaps, her mother's, which resembled the soft monotony of Lady Bertram's, only worn into fretfulness.)—Whatever was wanted, was halloo'd for, and the servants halloo'd out their excuses from the kitchen. The doors were in constant banging, the stairs were never at rest, nothing was done without a clatter, nobody sat still, and nobody could command attention when they spoke. (266)

일상의 한 단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패니의 고향집은 맨스필드와는 확연히 다르다.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관심, 많은 아이들과 과도한 가사 일에 지친 어머니에 의해 형성된 혼돈 그 자체가 전부이다. 한 마디로 모나한이 지적하였듯이, 포츠머스는 “계약도 없고, 인간관계도 명백히 단절된 곳”인 것이다(111). 그러한 실상을 경험하면서 패니만이 맨스필드가 지니고 있는 “고상함, 예의범절, 규칙,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와 교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266).

한편 토마스 경과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문제로는 비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있다. 그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질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만 자부할 뿐 교육 내용이나 각자의 기질에 대해서는 무

관심한 태도를 취한다. 딸들의 경우, 겉으로는 미모와 교양을 잘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아인식, 관대함, 겸손”의 덕목이 부족하다(16). 장남인 톰(Tom)도 아버지의 엄격함과 상관없이 부주의하고 방탕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토마스 경은 교육을 통해 내면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지 않는다. 한 예로 톰의 방탕함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았을 때도 그는 자신의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톰에게 극기(self-denial)의 중요성을 익히도록 교육 내용에 그것을 추가하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조치 시도하지 않는다(Waldron 90).

여기에 어머니 레이디 버트람의 문제도 더해진다. 레이디 버트람은 가부장적 통치에 순응하는 장식적인 아내이자 무기력한 어머니로서, 일찌감치 안주인으로서의 권력마저 포기한 채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는 나태하고 수동적인 삶을 지향한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그녀의 대표적 이미지를 제시하자면, 예쁜 옷을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패니의 시중을 받으며 쓸모없는 뜨개질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녀의 관심사는 늘 자신의 안위로 한정되며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문제, 그리고 각종 집안일은 그녀의 관심 밖에 있다. 레이디 버트람에게 관심의 대상이란 미와 부가 전부였던 것이다(Kirkham 129). 즉 자신의 자리는 다른 이에게 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만의 습관대로 사는 것에 만족해 온 것이다(Waldron 12). 이처럼 레이디 버트람은 어머니이자 아내의 자리에 존재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에 사실상 맨스필드에 안주인의 부재를 초래한다.

대신에 맨스필드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안주인이자 어머니의 역할은 노리스 부인에게 돌아간다. 권력을 위임받은 노리스 부인은 가정의 중대사에 적극 개입하고 결정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령 패니를 데려 오는 문제나 마리아(Maria)의 결혼 문제도 모두 노리스 부인의 제안으로 추진된 일들이다. 자연스럽게 맨스필드에서 노리스 부인의 영향력은 지대하여 때론 토마스 경의 권력에 맞서기도 한다. 그런 탓에 그녀는 스스로 맨스필드의 관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집안의 집사로서, 레이디 버트람의 딸들의 어머니로서, 토마스 경의 내조자 또는 아내”로서의 위치에 놓이는 것에 만족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Wallace 63). 그렇지만 그 권력은 양질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무엇보다

다도 조카들에게 어머니로서의 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향후 발생할 가정의 위기에 실책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버트람가의 경제력은 사회 변화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산업혁명 이후 상업과 무역으로 중산층의 상승이 두드러졌지만 지주 계급 또한 산업화에 적극 참여 한다. 그들은 토지재산을 바탕으로 산업시설에 투자하거나 식민지에 재산을 형성하는 등 더욱 재력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몰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박지향 382-84). 토마스 경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듯, 맨스필드 영지 외에 보유한 해외 식민지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국내 재산인 맨스필드 영지는 당시 상황과 맞물려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없는 실정이었다. 플레시먼은 작품이 나올 당시를 전후하여 나폴레옹과의 전쟁 여파로 이미 1812년 무렵에 농업관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1816년까지 영국 경제는 침체에 근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한다(15). 토마스 경은 그 부족분을 해외 식민지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나 1권의 3장에서 변화가 생긴다. 토마스 경이 식민지 농장의 문제로 인해 최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맨스필드의 재정 상황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리스 부인의 발언은 맨스필드가 해외 식민지 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다. 노리스 부인은 안티구아 농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적어지면 토마스 경의 재력이 다소 쪼들릴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현재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에 맨스필드의 소유 재산이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며(Fleishman 15), 더 나아가 식민지 재산이 젠트리 계급의 중요 경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오스틴은 버트람가를 통해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골 젠트리 가정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버트람가는 가부장의 권력이 우선시되는 전통적인 질서를 여전히 따르고 있으며 급진적인 사회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계급의 차이가 유지되고 있고 장자 중심의 상속제도가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맨스필드는 보유한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 외에 식민지 농장에서 나오는 자본에 상당수 의지하고 있기에 가정 경제력 면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흐름과 무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버트람가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Continental Blockade)과 노예제 문제라는 정치적 사건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III. 가부장이 일시적으로 부재할 때: 전통 질서의 와해

오스틴은 『맨스필드 파크』의 1권 3장에서 새로운 가족들의 등장과 가장의 부재라는 장치를 통해 맨스필드의 변화를 시도한다. 변화의 시작은 맨스필드의 불안정한 경제력에 기인하는데, 장자인 톰의 영향력이 컸다. 그의 비행으로 인해 손실된 재산을 채우고자 차남 에드먼드(Edmund)의 상속 재산이기도 한 맨스필드의 성직을 그랜트 박사(Dr. Grant)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은 크로포드 남매(Mr. and Miss Crawford)가 맨스필드 사회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또 다른 변화는 토마스 경이 식민지 재산 문제로 집을 떠나게 된 일이다. 사실 토마스 경의 일시적 부재는 정치적인 사건과 더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1807년 의회에서 제정한 ‘노예무역 폐지 법안’과 대륙봉쇄령에 따른 경제 붕괴에 바탕을 둔 것이다(Sales 90). 특히 부재지주(absentee landlord)였던 토마스 경에게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식민지 농장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당시에 식민지 농장 경영에 있어 노예는 중요한 동력이었으며 그것은 노예무역을 통해 공급되었다. 그러나 그 실상이 참혹하여 거둬진 논의와 대립 끝에 법안으로 금지되기에 이른다. 그 법안에 의해 부재지주 소유의 식민지 농장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문제 해결 차 토마스 경도 안티구아로 향하게 된 것이다.

토마스 경의 안티구아 행 이후 맨스필드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가정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절대 권력의 부재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은 제한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외부인들의 유입이 허용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된다. 외부인들 중 맨스필드에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이들은 크로포드 남매다. 그들은 도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가운데 잠시 삶의 지루함을 달래고자 시골 사회에 일시적으로 유입된다. 카

로노스(Michael Karounos)는 이들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쇠퇴기에 접어든 통치 집단의 한 부분인 맨스필드에 이들 남매의 소개는 사고 관계의 방법에서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721). 즉 그들은 런던 사고계 생활로 얻은 도시적인 세련된 매너와 화려함을 앞세워 맨스필드에 온기와 활력을 가져다 준 것이다. 반면에 왈드론(Mary Waldron)은 이들 남매를 “맨스필드의 도덕적 성채를 막 공격하려는 더 사악한 외부 세계의 대표자”로 평가한 바 있다(91). 이렇듯 크로포드 남매는 맨스필드의 질서와 상반된 특성을 지닌 존재임에 틀림없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맨스필드의 일원들과 달리 자유분방한 사고와 세속적인 도덕관념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러한 세계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모나한이 지적하였듯이 “그들의 런던식 윤리는 맨스필드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94). 그들 자체가 물질주의를 신봉하는 도시 중심의 문명이며, 물질만능의 사회가 내포하는 세속성기에 맨스필드가 지닌 전통적 관념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외부인들과 교류 후 이루어진 소더튼 코트(Sotherton Court) 방문은 맨스필드 일원들의 변화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작품에서 소더튼은 러쉬워스(Mr. Rushworth)의 저택으로 맨스필드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전통 사회를 상징한다. 맨스필드와 다른 점이라면, 변화와 보존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 실상은 외형에서부터 드러나는 데 주인인 러쉬워스마저도 “암울한 오래된 감옥”이라 표현할 정도로 우중충하며 관습에 의한 속박을 연상시킨다(39). 또한 지주인 러쉬워스는 어리석은 탓에 개량은커녕 전통적 양식을 지켜나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결국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소더튼은 쇠퇴한 전통 사회로 남게 된다. 이러한 건물의 내외적인 특성은 버트람 자매와 크로포드 남매에게 무관심과 답답함의 대상으로 작용하여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 된다. 대신에 저택 밖 공간은 변질된 의미로 환영받는다. 폐니를 제외한 남녀들에게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는 장소, 상대에 대한 감정과 성적 욕망을 더욱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즉 정원과 숲속은 전통적 질서와 무관한 급진적인 세계를 대표하며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남녀의 유희와 욕망의 시험장이 된 것이다.

이렇듯 소더튼 방문은 당대 만연하였던 급진적인 풍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의 예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루 동안 이루어진

방문에서 오스틴이 가장 부각시킨 사건은 젊은 남녀들의 도덕적 일탈 행동이다. 정원에 들어 선 네 남녀는 정해진 질서를 무시한 채 각각 헨리(Henry Crawford)와 마리아(Maria), 메리(Mary Crawford)와 에드먼드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개인적인 자유를 만끽하고자 닫혀있는 철문을 넘어 숲 속으로 사라진다. 이들이 물리적 경계를 상징하는 철문을 넘었다는 사실은 일종의 도덕적 일탈 행위의 시도로 해석되며 관습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사실적으로 드러난 파격적 행보라 할 수 있다. 특히 카로노스는 이러한 행동을 경계 위반의 한 예가 시도된 것으로 보며 첫 위반을 주도한 헨리와 마리아의 행위는 “소더튼 파크의 도덕과 물리적 경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724). 또한 이로 인해 맨스필드의 조화로운 질서도 깨지게 된다. 도덕적 관습을 과감히 무시하고 개인의 감정을 추구한 이 순간에 남녀의 성적 질투심이 촉발되어 자매간에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패니는 그들로부터 아예 고립된 채 철문 너머에 남겨지면서 그녀만이 홀로 도덕적 진정성을 지키는 상징으로 분리되게 된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오스틴이 급진주의 풍조에 의해 도덕성이 와해되고 있는 현실의 실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부정적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스틴은 또 다른 외부인 예이츠 씨(Mr. Yates)와의 교류를 통해 상류 계급에서 나타나는 도덕 상실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그려낸다. 예이츠 씨는 변화 속에 동요하고 있는 맨스필드에 극장 설치와 연극 연습을 제안하여 혼란과 갈등의 불을 점화시키는 인물이다. 모나한이 평가한 것처럼, 그는 맨스필드 사회에 “침입자”(101)인 것이다. 그는 톰과 더불어 섭정기를 전후로 나타났던 젠트리의 타락상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Karounos 723). 톰과 예이츠 씨는 평소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고자 늘 이동하는 성향이 있었는데(Sales 100), 그들은 주로 휴양지를 찾아 즐기기를 좋아하며, 당시 유행하였던 경마, 도박, 음주를 일삼는 공통된 취미를 갖고 있다. 휴양지에서 만난 인연으로 톰과 맨스필드에 오게 된 예이츠 씨는 독일 작가 코체부(August Kotzebue)의 원작을 번역한 『연인의 맹세』 (*Lover's Vows*)를 공연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맨스필드를 혼란의 장으로 탈바꿈 시킨다.

이 작품은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내용상 파격적이며 급진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특히 당대 도덕성의 기준을 전복시킨 내용들인 신분과 재산을 배제한 결혼의 시도, 혼전 관계와 사생아의 등장을 담고 있기에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번역자 인치볼드(Elizabeth Inchbald)도 세간의 논란을 줄이고자 노력 하였으나 여전히 “위험하고 퇴폐적인 극”으로 평가되고 있다 (Sales 119). 그럼에도 에드먼드와 패니를 제외한 맨스필드의 일원들은 이 작품을 공연하는 데 찬성한다. 이들의 선택은 나폴레옹과의 전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동떨어져 있는 상류 계급의 무감각한 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미 그들의 도덕관념이 와해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현이기도 하다.

이 연극 연습 에피소드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정치적 급진주의의 암시가 두드러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맨스필드의 일원들은 연극 연습을 통해 가장 중심의 가정 질서를 일순간 전복시키게 된다. 사실 연극을 올리겠다는 것 자체가 해방감과 자유를 맛보는 출구이므로 가부장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다. 즉 가부장의 권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자 “토마스 경과 그의 집에 대한 위법” 행위인 것이다(Monaghan 101). 토마스 경은 집을 떠나기 전, 권력 부재에 대해 미리 대안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나, 이러한 변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에드먼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재산 처분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집안 운영을 맡고, 노리스 부인은 안주인으로서 가정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느라 연극 연습에 동참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등 문제 상황 속에도 방관한다. 결국 가족 구성원들의 반역을 연상시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그 예로, 가부장의 영역을 상징하는 당구실과 아버지의 서재가 무대와 연습에 필요한 공간 확보라는 목적하에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맨스필드의 조용하고 우아한 질서는 사라지게 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들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침식당하게 된다.

또한 연극 연습은 당대 만연하였던 급진주의 풍조가 낳은 병폐의 한 예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출구로 작용한다. 먼저 배역을 정하는 데 있어 이미 앞서 소더튼 방문에서 드러났던 도덕적 일탈이 다시 재현되어 더욱 극대화된다. 맨스필드의 일원들은 개인의 이기적인 감성 추구에만 몰두하여 서로가 처한 애

정관계와 일치하는 배역을 맡고자 자매간에 불화를 일으켰고, 다른 배우들 사이에서도 질투와 이기심이 난무한다. 특히 상대역과의 연습에서는 도덕적 가치의 무시와 세속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감정의 표현과 잠재되어 있던 은밀한 성적 열정을 추구하고 드러내고자 연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통제 속에서 억눌려왔던 감정적 욕구의 폭발이기도 하며 성적 제한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마리아는 그 순간을 헨리와는 연애의 장으로 공식화 한다. 연습을 핑계로 감정과 성적 표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극 연습은 크로포드 남매가 지닌 부도덕성을 확인시켜 주는 장치로도 작용한다. 에드워즈(Thomas Edwards)는 그들이 “예술로 가정적 진실을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생과 예술을 구분짓지 못하고 연극을 이용해 각기 목표로 하는 대상에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들의 이기심을 비판적 시선으로 본다(16). 이로써 연극 연습 에피소드는 맨스필드 일원들이 어떻게 도덕적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장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아버지의 부재는 전통 중심의 가정 질서에 변화를 초래한다. 가정에 책임 있는 통치자의 부재를 이끌었고, 권력의 부재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원칙 없이 무절제한 자유를 누리며 세속적인 삶을 지향한 것이다. 게다가 외부인들의 유입과 교류는 맨스필드의 질서를 빠르게 붕괴시킨다. 특히 연극 연습은 변화된 가정 질서에 흔들리는 버트람 가족의 도덕적 와해를 더욱 가속화시킨 장치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급진주의가 만연하였던 영국 사회의 동요와 내부적 위기의 한 예를 생생히 재현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변화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맨스필드의 이방인인 패니만이 유일하게도 가부장에 의해 세워진 전통적 관념을 고수하며 지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패니는 변화에 동참하지 않아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되거나 고립에 처해지기까지 하였으나 이 시점부터 패니의 도덕적 가치는 맨스필드의 일원들과 분리되어 부각되기 시작한다.

IV. 가부장이 복귀했을 때: 전통과 변화의 공존

토마스 경의 가정으로의 귀환은 맨스필드에 가해진 급진적 성향의 후퇴를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가부장 중심의 보수적 체계로의 회귀를 상징한다. 그의 예고없이 이루어진 귀환은 변화된 가정 질서에 과장을 일으킨다. 가족 구성원들은 한 순간 공황 상태에 빠졌고, 혁명에 비유되는 연극 연습은 사전에 발각되고 차단되어 실패로 끝나버린다. 일시적이었지만 가부장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 성과 없이 끝나 버린 것이다. 토마스 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정의 질서를 부재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개혁의 상징물과도 같은 연극 공연 준비와 관련된 일들은 즉각 중단되었고 극장 폐쇄 사건을 연상시키는 조치가 가해져 무대 철거와 대본 소각이 이루어진다. 또한 러쉬워스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인들의 출입과 교류도 금지된다. 플레시먼은 이 조치를 토마스 경의 “혁명 발발 가능성에 대한 간접적인 방어”로 평가한다(10). 그러한 조치에 의해 맨스필드는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부재 이전의 정돈된 질서를 회복하고 다음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가 된다.

토마스 경의 귀환은 연인들의 맹세와 상관없이 가족의 습관에 두드러진 변화를 일으켰다. 그의 통치 하에서, 맨스필드는 완전히 다른 장소로 변해 버렸다. 그들과 사교를 즐기던 사람들 중 일부는 가버리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다. 과거와 비교해 보니 모두 똑같고 우울하였다. 그래서 우울한 가족 파티는 좀처럼 생기를 주지 못했다. 목사관 사람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다. 대체로 친교를 원치 않았던 토마스 경은 이때에 한 방면에서만 제외하고 어떤 사교상의 약속도 특별히 내켜하지 않았다. 러쉬워스 가족만이 토마스 경이 청하는 가정 모임에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었다.

Sir Thomas's return made a striking change in the ways of the family, independent of Lovers' Vows. Under his government, Mansfield was an altered place. Some members of their society sent away and the spirits of many others

saddened, it was all sameness and gloom, compared with the past; a sombre family-party rarely enlivened. There was little intercourse with the Parsonage. Sir Thomas drawing back from intimacies in general, was particularly disinclined, at this time, for any engagements but in one quarter. The Rushworths were the only addition to his own domestic circle which he could solicit. (135)

이 장면은 외부인들이 모두 맨스필드 내에서 사라지고 난 후의 모습으로, 토마스 경의 부재 시에 보였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예전처럼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웃음 없는 가정이 된 것이다. 토마스 경을 제외하고 이미 자유의 맛을 본 가족 구성원들은 이 순간을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

가부장적 질서를 재정립한 토마스 경은 마리아와 패니의 결혼 문제에서 유감없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먼저 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토마스 경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비록 아버지와 딸이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형상이 되었지만 결혼에 이른 것이다. 토마스 경에게 딸의 결혼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증강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 지닌 문제점을 도외시 한다. 사실 러쉬워스는 많은 재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결점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그에게 애정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럼에도 토마스 경은 물질주의와 마리아의 순응에 의지하여 딸을 불운한 결혼으로 이끄는 우를 범한다(Sales 131). 이에 반해 마리아의 결혼 목적은 개인적인 이기심의 실현이다. 마리아에게 “집에 대한 증오, 제약 그리고 평온함”이 크게 작용하면서 그녀는 결혼을 통해 아버지와 맨스필드로부터 독립하고자 한 것이다(139). 또 다른 이유는 사랑보다 차라리 지위와 물질이 주는 화려함을 추구하여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마리아의 물질 지향적 선택에 대해 윌러스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겠다는 마리아의 바람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충동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겨보겠다는 것이며, 억압된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대함이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힘을 지닌 무기를 획득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66). 즉 마리아의 결혼은 가부장의 권력과 부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성공에 힘입어 토마스 경은 조카 딸 패니의 결혼 문제에도 다시 한 번 속물근성을 발휘 하지만 패니의 저항을 맞게 된다. 이 결혼 역시 패니와 토마스 경 모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문제는 패니가 헨리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토마스 경은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도를 행한다. 그는 패니를 위한 무도회를 열고, 패니로 하여금 청혼을 받아들여주기 위해 회유와 설득을 재차 시행하지만, 패니의 청혼 수락을 얻어내지 못한다. 결국 가부장의 권력은 패니의 일관된 저항에 의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토마스 경은 패니의 선택을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한 후 패니를 고향 포츠머스로 추방해 버린다(216). 금전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자 일종의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도 실패하여 “실패한 실험”(Sales 112), “깜짝 놀랄만한 실패”로 평가된다(Wallace 68). 앞서 살펴보았듯이, 패니는 물질적 가치에 의해 맨스필드를 평가하지 않기에 그의 조치는 애초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계책이었다.

게다가 패니의 포츠머스 행은 “맨스필드의 도덕적 붕괴”로 이어진다(Roberts 50). 톰의 와병을 시작으로 버트람 자매들의 연이은 가출 사건으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장자인 톰은 외지에서 얻은 병으로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고, 큰 딸 마리아는 결혼한 부인의 처지에서 분별없이 헨리와 사랑의 도피를 감행한다. 둘째 딸 줄리아(Julia)도 언니의 사건 후 아버지의 질책과 아버지가 있는 집이 두려워 “부패한 귀족”인 예이즈 씨와 무작정 달아나 버린다(Fleishman 14). 또한 에드먼드조차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여전히 메리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의 원인은 두 명의 가부장에게서 비롯된다.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가정의 수장이 없음으로 인해 타락의 심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Monaghan 94). 경제력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도리어 가정의 안정성을 파괴한 것이다. 2차적 원인은 연극 연습에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장자 톰에게 있다. 카로노스도 예이즈 씨 보다 톰의 책임론이 더 크다고 지적하였는데, 톰이 개혁에 대한 잘못된 도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여동생을 망치고 집에 대한

손상과 불필요한 지출을 이끌었다는 것이다(721). 사실 톰은 작품에서 주변부 인물이지만 맨스필드에 직·간접으로 위험 요소를 허용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다(Sales 103). 톰의 방탕함 때문에 맨스필드 질서에 파장을 몰고 온 이들의 등장이 가능하였고, 연극 연습을 시도함으로써 맨스필드에 도시 문화에서 만 연하던 급진적이며 세속적인 풍조가 침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부재 시 이루어진 톰의 섭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가장의 귀국 후 이루어진 가부장적 통치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토마스 경이 취한 조치가 이미 변화를 경험한 맨스필드에 적절한 대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모나한이 지적하였듯이, 토마스 경이 이 사태의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근본적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질 수 없었던 것이다(93). 토마스 경은 앞서 톰의 비행에 접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조치만 취한 것이다. 그는 귀국 후 가장의 권위를 세우고 물리적인 혁명을 막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도덕과 행동의 방식에서의 혁명은 오히려 잡을 수 없었다(Karounos 722). 즉 가족 구성원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도덕적 관념의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그에 대한 적극적 교정이 취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토마스 경은 자녀들의 비행으로 긴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야 자기반성에 이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모로서 가정에서의 자신의 교육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가부장적 권위만을 고수하는 전통 관념에서 탈피하는 변화를 보인 것이다.

토마스 경은 원칙, 실질적인 원칙이 부족하였다고 유감스러워 하였다. 딸들에게 고통을 동반할 수 있는 책임감에 의해 자신들의 성향과 기질을 통제하도록 적절하게 가르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는 딸들에게 이론적으로 종교 교육도 시켰다.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교양을 갖추고 우아함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젊음을 대상으로 권위적인 방식으로—도덕이 정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는 유용한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그는 딸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지적인 것과 예절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던 것이다. 그는 금욕과 겸손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고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못 가르친 것이 유감이었다.

He feared that principle, active principle, had been wanting, that they had never been properly taught to govern their inclinations and tempers by that sense of duty which can alone suffice. They had been instructed theoretically in their religion, but never required to bring it into daily practice. To be distinguished for elegance and accomplishments—the authorised object of their youth—could have had no useful influence that way, no moral effect on the mind. He had meant them to be good, but his cares had been directed to the understanding and manners, not the disposition; and of the necessity of self-denial and humility, he feared they had never heard from any lips that could profit them. (314)

이와 같은 그의 행보는 앞서 암시되었던 버트람가의 가정교육 문제를 기정 사실화 하였고, 더 나아가 당대 여성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효과로 이어진다. 당시 여성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왈드론이 지적하였듯이 “사교 매너, 피상적인 것들, 그리고 서로 관련성이 없는 실체에 관한 임의적 습득”이 전부였다(90). 즉 사교계 진출과 결혼 시장에서 득이 될 만한 항목들을 익히는 것과 정숙한 여성의 자세를 강조하는 교육만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내면을 강화할 건전한 정신의 함양과 책임 의식을 심어 줄 지적 교육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겪고 나서 토마스 경이 취한 조치는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전통의 보존이었다. 무엇보다 도덕적 관습이 지켜지는 맨스필드를 생존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먼저 그는 전통적 가치를 저버리고 도덕성을 상실한 이들을 맨스필드에서 제거한다. 마리아를 맨스필드에서 완전히 추방하고 비효율적인 가정 경영과 지나친 권력을 남용한 노리스 부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추방한다.

대신에 끝까지 도덕적 미덕을 지키고자 했던 패니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녀의 확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맨스필드의 생존을 추진한다. 이러한 토마스 경의 해결방법으로 인해 브라운(Julia Prewitt Brown)은 맨스필드에 “정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99). 사실 패니의 성향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며, 안주인 레이디 버트람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패니 대신에 또 다른 조카 딸 수잔(Susan)의 시중을 받으며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지킨다. 결국 토마스 경은 패니가 지닌 도덕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맨스필드의 질서를 저해한 요인을 차단하는 것으로 오래된 전통 사회를 상징하는 맨스필드를 지켜 낸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결말로 인해 존슨(Claudia Johnson)은 이 작품을 통해 오스틴이 “존엄한 젠트리 가족에 대한 보수적 미학의 변수를 시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96).

그렇지만 오스틴은 폐쇄적이었던 맨스필드에 일부 변화를 시도한다. 우선 근친상간적인 성향이 있지만 사랑에 바탕을 둔 패니와 에드먼드의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물질주의를 저버리고 도덕성과 애정을 고수하였던 패니의 승리이기도 하다. 버트람 자매가 부도덕성을 지향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과 달리 패니는 결혼을 통해 목사의 아내이자 맨스필드의 정식 일원이 되는 지위를 갖게 되며, 토마스 경에게 “그가 원하는 진정한 딸”로서도 인정받게 되는 성취를 이룬 것이다(320). 또 다른 변화라면, 외부인의 출입을 불허하던 토마스 경이 딸들을 저버리고 포츠머스에서 수잔을 데려와 패니를 대신하게 한 일이다. 이 변화 속에 존재하는 공통된 사실을 꼽는다면 오스틴의 진보적인 성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오스틴은 어려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보다 더 실질적인 예는 패니의 포츠머스 생활에 나타나 있다. 평소 연약하고 수동적이던 패니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고향집에서 오빠 윌리엄(William Price)의 권고로 집안의 변화를 시도해 본다. 패니의 시도는 작은 범위에 한정되어 일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정부분 가정의 평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비록 패니가 포츠머스의 근본적인 개조를 이룩하지는 못하였으나, 늘 수동적이고 남을 위해 양보와 침묵만 일삼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한 여성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처럼 오스틴은 가부장의 복귀를 통해 당시 사회 내부에 존재하던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드러냄과 동시에 변화의 주요 기류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토마스 경은 안티구아에서 식민지의 참상과 신체적 안위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통치와 절대 권력의 행사라는 전통 질서를 고수한다. 반면에 가족 구성원들은 급진적인 풍조를 경험한 탓에 재정립된 가부장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결국 오스틴은 맨스필드의 위기를 조성하여 전통과 변화의 적절한 합일점을 찾고자 시도한다. 우선 분별없이 성적 욕구의 자유를 추구하다 몰락하는 마리아와 헨리의 비행을 통해 동시대에 만연하였던 급진주의에 의한 풍속의 변화와 동요, 그리고 도덕의 가치 하락 현상의 부적절함을 비판한다. 다음으로 토마스 경의 보수적 해결 방법을 통해 건전한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통적 질서의 보전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여기에 오스틴은 토마스 경으로 하여금 잘못된 교육 방식을 반성하게 하여 전형적인 가부장의 행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맨스필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더해진 중간 계급 출신인 패니의 가치를 부각시켜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오스틴은 경제적 변화와 별도로 위기 상황에 처한 영국 사회의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자 하였으며, 변화와 위기 속에서 보존된 맨스필드를 그려냄으로써, 급진적인 변화의 무분별한 유입 속에서도 건전한 도덕성의 추구만이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스틴은 가부장의 부재라는 장치를 통해 빅토리아 시대로 가기 직전의 영국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과 변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비록 당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주요 정치적 사건들과 사회적 이슈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스틴은 시골 젠트리 가족의 생활 변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던 급진적이며 세속적 풍조,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사회 내부의 문제와 갈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버트람가는 나폴레옹 전쟁 막바지시기에 있으면서도 국내 영지와 식민지 경

체력 덕분에 안정적인 삶을 누린다. 가부장의 부재이전까지 외형적으로 버트람가는 시골 지주의 가정으로 조용하고 정돈된 질서 속에 놓여 있으며, 가부장 중심의 전통적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로 대변된다. 비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며 강요된 도덕성 추구하고 욕망의 억눌림으로 인해 잠재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조화로운 가정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노예무역 폐지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된 가장의 부재는 맨스필드의 질서를 일순간 전복시킨다. 토마스 경의 안티구아행을 기점으로 맨스필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가장의 권력 부재와 외부인들의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전통적 질서를 무시하고 급진적인 성향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를 통해 오스틴은 당시 영국 사회의 내부적 위기를 재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영국 사회는 나폴레옹의 군대와 치열한 해상 전투를 치루고 있었고, 프랑스 군의 영국 침입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급진주의와 대립해야 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도덕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물질주의와 자본의 가치 증대가 낳은 화려한 도시생활, 향락, 나태 그리고 이기심에 의한 도덕성의 와해가 만연한 상황이었다. 또한 섭정 왕세자가 추구한 댄디즘(dandyism)과 여가 문화, 프랑스풍의 취향, 그리고 왕세자를 비롯한 상류 계층의 부도덕성이 더해지면서 영국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이러한 급진적인 사회 분위기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일시적 부재 시 일어났던 연극 연습 에피소드이다. 외부인인 예이츠 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연인의 맹세』 공연 연습은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부장의 제한과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패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과 외부인들은 모두 연극 연습에 동참한다. 연극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권력에 반하는 것으로 일종의 혁명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특히 연극 연습이 진행되면서 맨스필드는 무질서와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다. 맨스필드의 일원들이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이기적이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에만 몰두하다 보니 도덕성이 완전히 와해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통해 오스틴은 시골 젠트리 사회에 도시 문화가 유입되었을 때 전통 문화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맨스필드의 위기는 토마스 경의 예고 없이 이루어진 귀환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일시적 안정에 놓이지만 내부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변화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통적 관념을 고수하던 패니를 맨스필드에서 방출 시킨 후 자녀들의 연이은 비행으로 맨스필드는 고통과 불안을 겪으며 가정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야 했다. 토마스 경은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나서 이러한 상황이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깨닫는 변화를 보인다. 그렇지만 급진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태의 해결을 위해 토마스 경이 선택한 방식은 패니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녀를 통한 맨스필드의 보존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처럼 오스틴은 시골 젠트리 사회에서 서너 가족 중심의 교류 관계를 그려내는 데에만 몰두하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의도된 글쓰기의 전략이었다. 가족,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평범한 소재는 여성 작가로서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장치였던 것이다. 오스틴은 이러한 소극적 장치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전환기의 영국 사회를 재현해 내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변화의 기류와 도덕적 가치의 하락에서 비롯된 위기적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특히 오스틴은 맨스필드의 붕괴 위기를 통해 프랑스 혁명에 의해 만연하였던 급진주의 풍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드러냄으로써 당시 영국 내 혁명 발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세밀함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오스틴이 당시 사회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내는 데 있어서도 여느 동시대 작가들 못지않은 적극성을 발휘한 작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오스틴은 사회를 재현해 내는 데 있어 사회 내부의 부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도덕적 미덕을 중요시 다루었다는 점에서 보수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동시에 확고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여주인공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균형 있는 조화를 추구할 줄 아는 독특한 가치를 지닌 작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 박지향.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서울: 까치, 2000.
- 이영석. “18세기 영국의 국가체제와 제국 경영”. 『미국학』 28 (2005): 33-60.
- Austen, Jane. *Mansfield Park*. Ed. Claudia Johnson. New York: Norton, 1998.
- . *Jane Austen's Letters*. Ed. Deirdre Le Faye. Oxford: Oxford UP, 2011.
- Brown, Julia Prewitt. *Jane Austen's Novels*. Cambridge: Harvard UP, 1979.
- Edwards, Thomas R. “The Difficult Beauty of *Mansfield Park*.”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7. 7-22.
- Fleishman, Avrom. “*Mansfield Park* in Its Time.” *Nineteenth-Century Fiction* 22 (1967): 1-18.
- Johnson, Claudia L. *Jane Austen: Women, Politics, and the Novel*. Chicago: Chicago UP, 1990.
- Karounos, Michael. “Ordination and Revolution on *Mansfield Park*.”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44.4 (2004): 715-36.
- Kirkham, Margaret. “Feminist Irony and the Priceless Heroine of *Mansfield Park*.”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7. 117-33.
- Leavis, Q. D. “Jane Austen: Novelist of a Changing Society.” *Collected Essays* Vol.I. Ed. G. Singh. Cambridge: Cambridge UP, 1983. 26-60.
- Monaghan, David. *Jane Austen Structure and Social Vision*. London: Macmillan, 1980.
- Roberts, Warren. *Jane Austen and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Macmillan, 1979.

- Sales, Roger. *Jane Austen and Representations of Regency England*. London: Routledge, 1996.
- Tanner, Tony. *Jane Austen*. London: Macmillan, 1986.
- Waldron, Mary. *Jane Austen and the Fiction of Her Time*.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Wallace, Tara. *Jane Austen and Narrative Authority*. New York: St. Martin's, 1995.

Abstract

A Study of *Mansfield Park*: on the Patriarch's Absence and Return

Baek, Seung-bong · Lee, Hee-jung

Jane Austen wrote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as the late 18th century was giving way to the Victorian Era. During this time the English economy was invigorat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expansion of overseas settlements. However, England was facing a national crisis. Austen gave in depth descriptions of love and marriage against the backdrop of quiet country life in her works during this time.

Austen seemed indifferent to traditional Victorian social issues, but as Q. D. Leavis pointed out, Austen not only described the changing picture of life through the everyday issues of love and marriage, but also illustrated the psychological and moral issues caused by the transition. *Mansfield Park*, one of her works, did not deal with foreign affairs in politics directly, but it did show the effects of those affairs throughout society. Austen was able to reveal society's true picture by focusing on the Bertrams as they went through the changes of domestic order and ethical collapse of the landed gentry within the count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ges and problems of English society due to political and economical changes, and reveals Austen's awareness of the change in society, and the issues of the day by analyzing the Bertrams. The Bertrams highlight the dependence on patriarchal power and its absence, and its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families around them.

Key Words : Patriarch, absence, familial relationships, morality, social transition and crisis,

가부장, 부재, 가족 관계, 도덕성, 사회 변화와 위기

논문접수일: 2014.11.14

심사완료일: 2014.12.19

게재확정일: 2014.12.23

백승봉

소속: 대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487-711)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선단동)

e-mail: sbbaek@daejin.ac.kr

이희정

소속: 대진대학교 교양교직부

주소: (487-711)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선단동)

e-mail: austen2007@daejin.ac.kr